

# 광주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여진 증폭

##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 불법촬영 등 두차례 파행 관련 의원 고발 추진...사무국 직원 대상 '갑질' 논란도

광주 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논란과 갑질이 커지고 있다.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 논란이 일었으나 자진 사퇴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법 촬영이 적발되면서 투표가 두 차례 파행되는 등 원 구성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려 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이에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려 했으나, 당시 기획총무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돼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불법 촬영 의혹은 투표소 내에서 사진 찍는 소리를 포착한 A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서 제기됐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남구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자 일부 의원이 사진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남구의회는 상임위원장 투표를 5일 오전 11시로 연기하며, 투표 전자제 간담회를 통해 투표용지 촬영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4명 등 총 5명이 참석하지 않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간담회 불참자들은 뒤이어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이중 한 명인 B

의원이 오전 11시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온 사무국 직원에게 "직접 나와 지각 사유를 마이크로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도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B 의원의 '요청'에 늦게 온 직원이 의원 11명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면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C 의원이 자신의 집무실에 놓여져 있던 사진 간담회 자료에 대해 "만든 직원이 누구냐"며 "의원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냈다.

C 의원이 말한 자료는 본회의 전 열렸던 간담회에서 배포, 공유된 것으로 지방의회 구성과 상임위원회 선출 등에

관련 법령과 선출 무효 관련 사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C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본회의장은 '도떼기 시장'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D 의원이 "지난 4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촬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의혹을 받는 의원 4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자 의원 간 언쟁은 한 층 더 격화됐다.

D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거나 "투표가 끝난 뒤 뒤늦게 정회를 요청한 건 효력이 없다"는 등 반발하면서 제2

차 본회의는 오후 12시25분께 정회됐다.

청사 내 중계 방송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모두 지켜본 남구 관계자는 "기초 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본 것 같다"며 "의원 간 다툼에 사무국 직원을 끌어들이다니기가 차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 자료를 두고 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C 의원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 '갑질 논란'이 일자 C 의원은 "해당 공직자와 통화해 사과했다"며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자료를 만든 것은 이해하지만, 공직자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성학기자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 법원 "기본권 침해 인정"...8명 1인당 배상금 2천500만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배상금으로 2천500만원을 인정했다.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와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 등을 명분으로 삼청 계획 5호

를 입안해 계엄 포고했다.

이 영향으로 원고들은 1980년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끌려가 11공수여단에 입소했는데,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일부는 교육 중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순화 교육을 받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또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2023년) 이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31사단과 2사단 등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600만~9천600여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인재영기자



1987년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사망한 고(故) 이한열 열사 제37주기 추모식이 지난 5일 오후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려 유족 대표로 나온 이 열사의 큰누나 이숙례씨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 "발달장애 주간 활동 서비스 '65세 이상 중단' 부당"

### 법원, 광주 북구청 상대 '중단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에서 서비스 중단 처분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아오다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자격을 잃었다.

해당 서비스는 대상자가 낮 시간대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나이 제한은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에서 대상을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법령 어디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자

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65세 이상은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주간 활동 서비스 대신 급여를 받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낮 활동과 지역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판결에 앞서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한 발달장애인도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피고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재영기자

## "민주주의 위한 열사 정신 기억해야"

### 故 이한열 열사 37주기 추모식...유족 등 100여명 참석

"열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같이 싸우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지난 5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 제37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사)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 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유족들을 비롯해 이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 추모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사말 ▲열사 연보 낭독 ▲추모사 ▲내빈 소개 ▲유가족 인사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열사들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각오를 다지자"고 전했다.

연보 낭독 후 이어진 추모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됐다"

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민주적 개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표로 나온 이 열사의 큰누나 이숙례씨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돼 연로한 부모들이 자식의 영정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 '6·10 총궐기'를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27일 동안 투병하다 사망했다. /주성학기자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b>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b>	<b>매일/9시~</b>
<b>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b>	<b>수시접수</b>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